목포미항초, 우리가 바다지킴이! 마을 플로깅 ZUPZUP 활동

목포 평화광장 일대 및 학교 주변 생태 보호 위한 플로깅 진행 목포교육청 주관 '농생명산업 진로체험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목포미항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지난 25일 목포 평화광장 일대 및 학교 주변 생태 보호를 위한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목포시교육청 주관 '농생명산 업 진로체험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의 일환 으로 목포미항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주 축이 되어 학생 주도형 활동으로 진행되었

4학년 3개의 학급이 각각 장소와 날짜를 나눠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고 9월 25일(월) 첫 번째 활동으로 평화광장 일 대 플로깅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목포미항초 4학년 학생들은 탄소 zero 화를 위한 샴푸바 만들기, 버섯 식물 키

우기, 환경 관련 도서 읽고 토론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생명산업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경험하였다. 이번 '우리 마을 플로깅' 활동은 학생들이 계획하고 진행한 프로젝트로 학교에서 가까운 평화광장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구슬땀을 흘리며 쓰레기를 주웠던 4학년 학생은 "매일 산책하던 길에 이렇게 많은 쓰 레기가 있는지 미처 몰랐어요. 앞으로 가족 과 함께 산책할 때 우리 가족 플로깅도 진행 하고 싶어요."라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또 다 른 학생은 "쓰레기를 주우며 계속 걷는 플로 강이 쉽지 않았지만, 뒤돌아봤을 때 깨끗해 진 길을 보니 뿌듯했어요. 앞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노력해야겠어요."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임지은 교장은 "이번 플로깅 활동은 학생들이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교육적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실 안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학생들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목포미항초등학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플로깅 활동을 통해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아끼는 활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국<mark>포=기동취재본</mark>두



신안 비금동초, 전통 음식 문화 체험 실시



신안 비금동초등학교는 지난 25일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 음식 문화 체험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비금동 에코 그린 텃밭에서 수확

한 작물을 활용하여 송편과 산적을 만들며 작물 수확의 기쁨도 맛보았다.

이날 송편 체험 코너에서 학생들은 쌀가루 반죽을 고사리 손으로 동글동글 말아 송편소 를 넣어 예쁜 송편을 만들었다. 산적 체험 코너 에서는 꽂이에 대파, 햄, 맛살 등을 꽂아 밀가 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입혀 후라이팬에 지져, 고소한 산적을 완성하였다. 학생들은 체험이 끝난 후 만든 음식을 맛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 내며 우리 명절 풍습을 체험했다.

신안=이덕주기자

진도 조도초, 새섬누리배움터 마을학교와 함께 내고장 탐방주간 운영

학년군별 굿즈 만들기, 홍보 영상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도 조도초등학교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본교 1~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섬누리배움터 마을학교와 함께 내고장 탐방 주간을 운영하였다.

교사들이 철저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마을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재구성하고, 학생들은 마을학교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고장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매년 9월 중순에 내고장 탐방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1~2학년은 내고장 굿즈 만들기, 3학년은 고장에서 볼 수 있는 어패류를 활용한 내고장 모빌 만들기, 4학년은 내고장 홍보 지도 만들기, 5학년은 내고장 홍보 영상 만들기, 6학년은 조도군도 해상탐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진도=조상용기자

영광 법성중학생회, 에코페스티벌 실시

영광 법성중학교 학생회가 지난 14일 에코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선생님들이 이끌어 가는 전통적 행사와 다르게 학생회 학생들이 직접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즐겁게 배우는 탄소중립교육의 장이었다.

탄소중립중점학교인 법성중학교는 〈지9하는 학교〉를 선포하고 상시적으로 1인 1반려식 물가꾸기와 우유곽 재활용하기, 폐건전지 모 으기를 실천하고 있다. 이번에는 학생회에서 특별하게 에코페스티벌을 기획하였다.

조은찬 빛가람중학교 학생회장은 "에코 페 스티벌을 처음 해보았는데 선생님이 아닌 학 생들이 주관하는 환경 행사였기 때문에 학생



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었다.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재미있었고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기 좋았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 월야초, 한가위 앞두고 '전통놀이 한마당' 개최

마을연계 교육과정으로 운영

함평 월야초등학교는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지난 25일 전통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연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전래놀이를 보급, 홍보하는 천지마을학교와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전교생과 교직원이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작 놀이 활동으로 제기차기, 비석 치기, 딱 지치기, 활쏘기, 투호, 굴렁쇠 등 다양한 전통 놀이 부스에서 개별 체험을 진행하였고, 본 놀 이 활동에서는 단체 출다리기, 콩주머니 던지기, 이어달리기 등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는 단체 체험을 진행하였다.

임영희 교장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의 특성과 명절 시기에 맞추어 전통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우리나라 전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단체활동을 통해 배려와 협동심을 체득하였다"고 말했다

김00 학생은 "우리나라 전통놀이가 이렇게 다양하고 즐거운지 처음 알았다. 한가위에 가



적통을이 보였을 때 이번 영사 때 메였던 전통놀이를 알려드리고 모두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